사무엘상 8. 사무엘의 다스림과 이스라엘의 회복 (삼상 7 장 1-17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7 장은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멜세메스를 거쳐 기랏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 년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후, 민족적인 대회개의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쳐들어 왔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뢰를 발하시어 전쟁에서 패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한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그 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은 다 회복되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은 결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내를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무엘은 벧엘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1. 갈 곳을 잃은 하나님의 언약궤 (1-2 절)

1) 멜세메스 사람들은 기랏여아림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가도록 청하였습니다. (6 장 20-21 절)

■ **그럼 왜 멜세메스 사람들은 기랏여아림 사람들을 불렀을까?**

① 법궤가 있던 실로로 가는 길에 가장 가까운 성읍이 '기랏여아림' 이었다는 추측.

②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실로의 성막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를 실로로 가져갈 수 없게 되자 실로 주변의 성읍 중 가장 큰 성읍이었던 기랏여아림을 선택했다는 추측.

2) 아무튼 기랏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이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7 장 1 절)

➢ **주목 1. 멜세메스 사람들과 기랏여아림 사람들의 차이**

① 멜세메스 - 암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고 옴, But 기랏여아림 - 친히 와서 모셔감.

② 멜세메스 - 언약궤를 들판의 돌 위에 두어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쉽게 보게 두었음. But, 기랏여아림 - 언약궤를 경건하게 모실 장소와 사람을 미리 준비하고 지키게 함! (아비나답의 집 + 아들 엘리아살이 지킴)

아마도 엘리아살의 임무는 아마도 호기심 많은 사람들로부터 언약궤를 지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

➢ **주목 2.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 아닌 개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는 사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공적인 장소가 아닌 개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임재하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깨닫게 해 주신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 년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2 절)

생각하기 1.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을까?

4) 아무튼 이렇게 20 년이 흐른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 절)

■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였다' 는 표현은 '슬퍼하며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였다'는 뜻. 그런데 저들이 슬퍼하며 하나님을 구한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축복으로 인한 인간적인 필요에서 오는 탄식이었습니다.

2.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가르쳤습니다. (3-6 절)

1)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사무엘이 제시한 두 가지 조건 (3-4 절)
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릴 것!
②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길 것!
->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

➢ **주목 3.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라는 사무엘의 선포.**
여기 '향하다' 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을 먼저 제거하고 돌이킨다는 의미가 우선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먼저 하나님을 향해 확고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믿음의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2)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족속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5 절)
-> 이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 **주목 4.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하나님께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는 것 (6 절)**
참고 : 저들이 물을 길어 부은 이유?
① 물을 부음과 같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회개를 상징!
② 그릇에서 쏟아져 나온 물과 같이 이제 그들의 모든 죄와 결별하고, 더 이상 죄에 연연하여 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상징!

곧 저들은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 금식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확고하게 결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언제나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를 모두 청산하고,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간다면, 언제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함없는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3.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한번에 전멸시키기 위해 미스바로 공격해 왔습니다. (7-8 절)

■ 진정한 부흥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는, 언제나 사탄은 크고 작은 시험거리들과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리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 **주목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
이것은 곧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게 된 위기에 바른 대처법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저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블레셋은 저들을 죽이기 위해 침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교회의 부흥이나 개인의 신앙성장과 관련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때, 항상 사탄의 방해로 인한 위기가 있음을 알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성도가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비결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뿐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9 절)

➢ **주목 5. 사무엘이 드린 젖 먹는 어린양과 온전한 번제**
번제의 제물로 받쳐진 어린 양은 장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번제'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과 순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며 블레셋 군대가 전쟁에 패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10-14 절)

1)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는 블레셋 군데에 하나님은 우뢰를 발하시며 저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10 절)

■ **참고 : 성경에서 '우뢰'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29 편 3-4 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2)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그 이름을 '에벤에셀' 이라 불렀습니다.

■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는 뜻입니다.

➢ **주목 6. 사무엘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돌은 세운 장소는 20 년전 그들의 조상들이 블레셋에 처참히 패했던 같은 장소였다는 사실!**

곧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지 않고 범죄하던 조상들은 블레셋에 처참하게 패하였지만, 사무엘의 가르침에 겸손히 순종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패한 뒤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결코 이스라엘 경내로 다시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13 절)

■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기 때문!

4) 또한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이 다 회복되었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4 절)

6.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벧엘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고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5-17 절)

➢ **주목 7. 15-17 절의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는 '다스린다'는 단어!**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의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곧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백성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 2.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